

새해 예산 총 305억원 확정

건협, '96. 정기대의원총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해 12월 3일, 서교호텔에서 개최하고 새해 예산 총 규모를 305억원으로 확정·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건강관리사업 551만여명, 기생충관리사업 17만9천여명 등 새해 사업계획을 비롯해 울산지부 설치 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통과시켰다.

총회에서는 또 지난 해로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선출에서 조한익(서울의대 교수), 조승렬(가톨릭의대 교수) 감사를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한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협은 지난 한해동안 정부의 보건정책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다."면서, "새해에도 지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생활실천유도 등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건협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우수 직원 및 유관 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회장 표창, 회장 감사장 수여가 있었으며, 특히 건협이 지난 해부터 오랜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직원을 매년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한 '자랑스런 건협인상'은 성정웅 사무총장이 수

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6명)

황인수(광주·전남지부 차장), 정남호(부산지부 사업과장), 윤달식(충북지부 검사소장), 조영표(전북지부 흥보과장), 함동천(강원지부 대리), 신미경(충남지부 대리)

◎ 자랑스런 건협인상 : 성정웅 사무총장

◎ 회장 감사장

이원규(농협중앙회), 안순범(일간보사 기자), 한선교(부산사직여중 교장) 외 13명

◎ 회장 표창

배기웅(전북 검사소장), 조미자(서울지부 대리) 외 10명

27▶

서울지부, 강북지역 순회 무료검사



서울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제기동 벽산APT, 성북구청, 상계동 APT단지 등 강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검진에서는 혈압측정, 혈당, 혈액형, 소변검사 등을 비롯해 건강상담 등이 이루어졌다.

는데 약 1천명의 주민이 무료검사를 받았다.

스테롤, B형간염, 빈혈, 혈액질환 등이었다.

인천지부, 한사랑 어린이집 무료검사



인천지부는 지난 해 11월 11일, 한사랑어린이집(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소재) 원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검사종목은 소변, 콜레

경남지부, 오지주민 120여명 무료검사



경남지부는 지난 해 11월 7일, 함안군 군북면 오곡리에서 있었던 경남 새마을 부녀회 후원회 주최의 "농촌 주민과 사랑의 한마당" 행사에 참가해 농촌 오지 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했다.